

# 전주시 '전주정신' 확산 발벗고 나서

### 온다라 인문학 연구단과 전문가 양성... '한국의 꽃심, 전주' 정신 강연

전주시가 인문학 강의 등 각종 평생 학습교육을 통해 전주의 역사성과 고유성, 미래성을 상징하는 대표정신인 전주정신을 확산시켜나갈 전문가를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는 온다라 인문학 연구단과 공동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전주정신 확산을 위한 전문가 양성반 강의를 운영한다.

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대동)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 않고(풍류)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하며(윤공음), 창의적 미래를 열어 가는 것(창신, 創新)을 토대로 한 '한국의 꽃심'으로, 지난 6월 전주시민의 날에 선포됐다.

이번 강좌는 강의 경력을 지닌 학사 이상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전주정신에 대해 배운 내용을 향후 각종 강의와 강연 시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총 7회 차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법종 우석대 교수(역사교육과)의 '전주역사문화의 특질'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전주정신을 구성하는 대동과 풍류, 윤공음, 창신 등 4개 요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4개 정신 강의는 광병창 우석대 교수(문예창작학과)의 '종류문화와 풍류정신', 김기현 전북대 교수(유리교육과)의 '윤공음과 절의정신', 홍성덕 전주대 교수(역사문화콘텐츠학과)의 '배려와 포용의 대동정신', 함한희 전북대 교수(고고문화인류학과)의 '전통을 토대로 한 창신'을 주제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전주정신정립위원장이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참석자들의 강의사연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생학습도

시민 전주사에서 진행되는 각종 평생교육과 강의, 강좌 등을 통해 전주정신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전주정신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각 부서별로 전주정신 확산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주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라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산하 전 부서에서는 전주정신 확산을 위한 단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교육청과 복지관, 박물관, 문화원 등 업무와 연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구해 함께 할 수 있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실례로 시는 전주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진행중인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주민설명회에서 전주정신

홍보 동영상을 방영하는 등 교통관련 단체와 협회, 전주시민외버스위원회 운수회사 등과 협력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전주정신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주라는 지리적 영토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이 정신적 영토인 전주정신 위에 품격 있는 공동체를 이뤄내 높은 자부심과 넉넉한 전주인의 삶을 꽃피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5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문 강사 양성으로 전주의 대표정신인 전주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각 부서별 확산 방안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전주정신을 적극 홍보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자랑스러운 전주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아 6만 시민들과 함께 선포한 전주정신은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 그리고 '씩을 띄워내는 생명의 힘'을 의미를 지닌 '한국의 꽃심, 전주'로 대표된다. /김영재 기자

# 여성 고객 몰카 찍은 경찰 간부 파면

대형마트에서 여성 고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48)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했다.

A경위는 지난 7월7일 오후 1시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마트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경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받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주택가 상습 차량털이 10대 구속영장

전주완진경찰서는 1일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21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20여만원과 체크카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조사결과 A군은 최근 3개월 간 전주 시내 주택가를 돌며 총 24회에 걸쳐 차량에서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골라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당신들의 사과를 걸치레일 뿐" 가슴기살군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환경보건 시민센터에서 옥시리엔티저 사과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승환 교육감, 명분없는 감사원 출석 요구 '거부'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자 김 교육감은 출석을 거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공문을 통해 감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8월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감사원의 출석 요구는 흠집 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전북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승진 인사와 관련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이 조사하는 사건은 비위 사실을 입증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헌신적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이 출석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 요구는 표적감사며 비위가 있다면 고발하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민형 기자

# 밀린 월급에 앙심 품고 식당 애원견 훔친 30대 입건

전주완진경찰서는 1일 중국음식점에서 애원견을 훔치고 폭행한 혐의(야간주거침입죄, 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24일 오전 5시56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B씨(56)의 중식당에서 애원견 1마리(시가 70만원 상당)를 훔쳐 자신의 집에서 애원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눈과 귀를 멍들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 군산대 여대생 中사천성서 사망

중국에 문화체험을 떠난 군산대 여대생이 중국 현지에서 사망했다.

1일 전북 군산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중어중문학과 3년 강모(21·여)양이 지난달 31일 중국 사천성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강 양은 군산대 특성화사업단에서 지도교수 인솔 아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지난달 11일 출국해 한 달간 일정으로 문화체험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양은 중국 사천성 사천과학원 연구원을 비롯해 직원 및 체험단 일행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던 중 호흡근단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형 기자

# 전주역 앞 '예담나무' 식재

예담공예, 공모사업 상금 200만원 전액 기부

전주 첫 마중길 명품도시숲에 전주 예비사회적기업인 (주)예담공예의 이름을 딴 '예담나무'가 식재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지민속인형을 제작해온 (주)예담공예(대표 전선례)는 이날 전주시장앞에서 전주역 앞 대로에 조성되는 전주 첫 마중길의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상금으로 2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상금은 (주)예담공예가 지난 6월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16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에 참여해 최종 25선에 선정돼 받은 상금이다.

전선례 대표는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서 "한 그루 한 그루 도시민들의 스토리를 담아낸 명품도시숲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인상을 남겼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4년 전라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주)예담공예는 한지민속인형과 한지 손거울 등 한지 공예상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한옥 마을 대표 관광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는 서울신라면세점과 인천1·2항 면세점에 입점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주)예담공예는 그간 지역 내 고령자와 장기 실직자 등을 근로자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소년과 다문화 여성 등에게 무료 체험, 생상품 제공 등을 통해 사회에 수익을 환원하고 있다"며 "예담공예를 비롯한 62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특립 순환경제 구축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은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 중앙에 폭 15~20m의 광장으로 조성되는 명품도시숲에 느티나무 200그루를 심어 사람이 물리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명품도시숲을 출생·입학·결혼·취업 등을 기념하는 가족기념식수와 기관·단체·기업들의 뜻있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헌수운동을 통해 도시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살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채용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채용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